



미국의 영업용 자동차보험 경쟁력 제고 방안¹⁾

채원영 연구원

연구

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은 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및 숙련된 트럭운전자 고령화, 영업용 차량 운전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함. 이에 따라 평균 자동차보험 요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회사 간 요율 경쟁으로 인해 최근 그 상승세가 완만해짐. 이에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회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텔레매틱스 도입을 통한 언더라이팅 기준 강화와 손해율 관리를 모색하고 있음.

-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이 2013년 이후 95%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원인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산업의 손해율 상승임.
 - 미국 손해보험 상업용 종목의 합산비율이 2013년 이후 95%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,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은 2010년 97.4%에서 2015년 108.6%로 상승하였음.
 - 이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이 2010년 31.1%, 2015년 30.1%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반면, 손해율은 2010년 54.7%에서 2015년 65.2%로 상승하였기 때문임.

-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은 금융위기 이후 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사고빈도 및 심도 증가, 원수보험료 비중이 높은 주의 노폴트(No-Fault) 제도²⁾ 등에 따른 보험금 증가임.
 - 2008년 금융위기 발생으로 지연된 영업용 차량 투자가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영업용 차량 등록대수와 운행거리가 증가하여 사고 발생빈도 및 심도가 모두 상승함.
 - 신규 트럭운전자 감소, 경기 회복에 따른 영업용 차량 운행 증가 등으로 운전자 1인당 운행거리가 늘어났으며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긴 숙련된 트럭운전자의 고령화도 손해율 상승의 원인임.

1) A.M. Best(2016. 12. 13), “Deteriorating Commercial Automobile Performance Continues to hinder profitability of overall P/C market”, <http://www.ambest.com>,
 2) 노폴트(No-fault) 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,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사기적인 보험료 청구 등으로 보험금이 증가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함; 한국금융신문(2014. 7. 27), www.fntimes.com/.

- 연방운송회사안전청(FMCSA: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)에서 실시한 교통안전 5개년 계획으로 트럭운전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신규 트럭운전자 수가 감소함.
- 또한 열악한 근로 환경, 자율주행차 등장 전망 등으로 신규 트럭면허 취득자 수는 감소 추세임.
- 또한 원수보험료 비중이 높은 뉴욕, 플로리다, 펜실베이니아, 뉴저지 등에서는 노폴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배상책임 제도를 시행하는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.³⁾

■ 보험금 증가로 인한 손해율 상승에 따라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평균 요율은 2011년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최근 그 상승세가 둔화되었음.

-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평균 요율은 2011년 4/4분기~2014년 1/4분기 평균 3.0% 상승하였으나 2014년 2/4분기~2016년 3/4분기에는 평균 2.2% 상승하는데 그침.
-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은 상위 25개사가 전체 시장의 65%(2015년 원수보험료 기준)를 차지하는 경쟁도가 높은 시장으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보험요율 상승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■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미국의 일부 손해보험회사는 영업용 자동차부문에서도 텔레매틱스 보험 판매에 주목하고 있음.⁴⁾

- 영업용 자동차보험 인수에 중요한 요인은 운송 화물의 위험성 여부, 운행 지역 및 운행 거리, 운행 기록 및 회사 보유 차량 유형, 운전자의 영업용 차량 운행이력 등임.
- A.M. Best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 및 운전자의 피로도 측정 등을 위한 텔레매틱스 보험 도입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함.
 - 최근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숙련된 운전자의 부족 및 운전자의 고령화에 따른 것이므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위험 평가도 중요함.

■ A.M. Best는 미국 영업용 자동차 보험회사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 보험료 상승 억제를 위해 텔레매틱스 도입 및 언더라이팅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손해율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함.

- 한국의 경우도 최근 영업용 차량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어 텔레매틱스를 통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 [kiri](#)

3) 전용식(2016. 8), 「합리적인 대인사고 보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」, 『월간 손해보험』, 2016년 8월 호.

4) 영업용 자동차보험 중에서 텔레매틱스 보험은 Hartford 등 일부 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이나 그 판매량이 아직 미미한 수준임.